

“오대산 사찰 경제가치 연간 581억원 넘는다”

한상열 경북대 입학과 교수 등 조계종 환경위 정책토론회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재평가 주장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사찰경관과 종교, 자연을 포함한 복합유산적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연계된 종교적, 미학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 등에 기반해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위 소속 ‘사찰립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세 차례 걸쳐 조사한 오대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지구의 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공원문화유산지구가 단순히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 시설 가능 지역’이 아닌 한국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서 차별화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복합유산지역으로서의 기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종교적 다양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사업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찰 특성에

맞는 탐방 서비스 등 실질적 지원과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경 동국대 교수도 “복합유산지역, 살아있는 종교지역, 세계적 문화유산의 하나로 전통사찰지역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사위원회 같은 자체적 심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사찰의 국립공원 보존 기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상열 경북대 입학과 교수는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다양한 방법에 따라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종합적 평가에 따른 오대산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연간 이용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면 581억567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최한창 환경부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두고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최한창 사무관은 “환경부에서도 기존의 명령과 규제 중심의 보존책이 아닌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받는 가능 서비스를 평가해 그 가치를 보상해줌으로써 공원문화유산지구의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며 “생태문화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찰과 사유지에 대한 지원, 또한 적어도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경관에 대해서는 탐방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장병 율활유 비타민 되자”

제4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충분산성역화 불사 1억원 전달



순직 군승과 장병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고 있는 주요 내빈과 군승들.

제48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전군이 군법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법의 의지를 다잡았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스님)는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지난 11월3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봉행했다. 군종교구는 1기 군승 5명이 임관한 1968년 11월30일을 ‘군승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선 새롭게 도약하는 군불교를 위한 군승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육·해·공군 포교현장의 군승법사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을 비롯한 육·해·공군 선인 군승들은 법회를 직접 찾아 군승들을 격려한 총무원장 지흥스님에게 ‘조계종 충분산 성역화 불사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하며 모범을 보였다.

총무원장 지흥스님은 치사에서 “태동과 성장을 지나 이제 중년의 성숙함에 들어서는 군불교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밀거름 삼아 다가올 50년, 새롭게 도약하는 군불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군승법사들을 비롯한 군불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힘찬 정진과 노력으로 군불교의 발전, 불교의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우스님은 봉행사에서 “군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함께 관심과 배려로 따뜻한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율활유가 되고 비터민이 되었으면 한다”며 “군포교의 사명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에선 ‘올해의 군승상’ 등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올해의 군승상은 육군 7군단 도관 김희군 법사(총무원장상), 육군 3군단 상적 이상무 법사와 50사단 헌무 박재용 법사(포교원장상), 육군 17사단 지안 강부택 법사와 해군 6항공전단 법설 황준혁 법사 그리고 공군 항공안전단 본연 안성규 법사(군종교구장상)가 각각 수상했다. 법회에는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법회에 앞서 출가 수행자로서 정체성 확립과 군포교의 사명을 점검하는 ‘포살법회’를 2대 교구장을 역임한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을 계사로 국방부 원광사에서 거행했다. ‘순직 군승 합동추모제’도 함께 진행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이웃 고통 내 아픔으로...자비실천 앞장서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비나눔대축제 개최 실천가 유공자 ‘시상’

지난 1년간 복지현장에서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불교계 사회복지 실천가들을 격려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흥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일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2016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제18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비나눔 대축제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흥스님, 총무원장 사회부장 정문스님,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화평스님, 전 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비롯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비나눔 대축제는 ‘더 나눔’을 주제로 한 자비나눔 힐링콘서트로 막이 올랐다. 콘서트에서는 인기 가수 안치환 씨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이어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이들을 치하하는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광주광역시지역자활센터장 도제스님과 김은희 여주시장애인복지관장 등 10명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김희철 서울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장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장관상을, 석주와 자비의전화 봉사자 등 2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황송노인종합복지관장 일운스님, 지구촌공생회 라오스지부장 태우스님, 이마저 조계종 자원봉사단 봉사자가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참가자들은 시상이 진행될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내며 유공자들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흥스님은 포교원장 지흥



지난 1일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 포교원장 지흥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수상자 기념촬영.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는 불교계 사회복지의 저력을 보여주는 축제이자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이타행의 면면을 함께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법연의 자리”라며 “조발심사변정작(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이웃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내밀었던 처음에 일으킨 마음을 항상 소중히 간직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복지 현장에서 자비나눔 실천에 앞장서 나갈 것으로 한 마음으로 다짐하

며 자비나눔 대축제를 마무리했다.

한편 사회복지재단은 자비나눔 대축제에 앞서 ‘생애주기별 1인가구의 특성과 복지계의 역할’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과 요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장년 1인 가구는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1인가구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이혼

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실직, 기러기 가족 등으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신가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장년의 1인 가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외감과 고독감”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대안으로 △도반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이웃 만들기 △여가프로그램 운영 △상담장구 개설 △봉사단체 결성 △제2 인생설계 대학 운영 등을 제시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신행혁신 불자상 정립’ 포교원·동국대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흥스님)과 동국대 종합연구소(소장 종호스님)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연찬회를 개최한다. 이

번 연찬회는 제7대 포교원 집행부가 ‘신행혁신으로 전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다’는 포교원력을 세운 뒤 추진 중인 신행혁신운동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불자상과 청구를 발표해 사부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집시키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실장이 사회를 맡게 된 이번 연찬회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이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 방향’, 박희

승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사업단장이 ‘신행혁신운동에 따른 불자상과 청구 제정안’을 발제한다.

이어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명범스님과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스님,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을 펼친 뒤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신도교육 체계 안내

입교(발심품계)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와 사찰 및 신행 활동 등 신도로서 사찰과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진 신도등록(발심품계등록)

전문교육(부동품계)

기본교육 이수 후 핵심신도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
중단인가 불교대학
1년 96시간 이상

재교육(부동품계)

신행활동과 신심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평생교육
신행활동, 불사참여, 연수 등 신도임원활동

지도자교육(선혜품계)

중단 신도 지도인력형성
을 위한 교육
포교원 지정 교육

발심품계



행도품계

기본교육(행도품계)

불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추기 위해 배워야 할 불교 교육의 길잡이 과정
3개월 이상(12시간 이상 1년 이내)